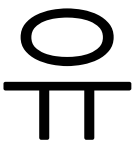
Governance Opinion

〈 정말 '깨끗한'나라? 〉



가증권시장 상장기업 깨끗한나라는 1966년 설립되어 1975년에 상장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기업이다. 과거 사명은 대한펄프였으며, 우리에게는 화장지, 티슈 등의 상품으로 친숙한 기업이다.

현재 깨끗한나라의 대표이사인 최병민 회장은 우리나라 제지업계 1세대인 최화식 창업자의 아들로 1980년 부친이 별세하면서 젊은 나이에 회사를 맡아 이끌어 오고 있다. 그런데 깨끗한나라는 IMF 외환위기 당시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백억원 이상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단위 : 천원)

구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매출액	489,091,938	457,905,228	394,059,652	373,583,437
순이익	-3,029,260	-29,422,141	-19,755,966	-14,801,852
자본금	123,229,750	43,229,750	43,229,750	108,074,385
자본총계	103,568,010	27,105,821	23,798,364	43,561,258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적자가 누적되어 자본잠식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감자 등 재무구조 개선 조치를 취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 결국 최병민 회장은 처가인 희성전자에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이에 2009년 2월 희성전자는 최병민 회장으로부터 499만주를 매수하여 약 깨끗한나라의 지분 57.75%를 보유하게 된다. 참고로 희성전자의 최대주주는 구본능 회장으로 구본능 회장의 부친 구자경은 LG그룹 명예회장이며 할아버지는 LG그룹의 창업주 구인회 회장이다. 그리고 최병민 회장의 배우자인 구미정씨는 구본능 희성전자 회장의 여동생이다. 즉, 구미정씨는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손녀이고 최병민 회장은 LG가의 사위인 것이다.

희성전자는 최병민 회장으로부터 깨끗한나라의 주식을 매수한 직후 주주배정후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

자를 단행해 약 620억원을 깨끗한나라에 긴급 수혈한다. 희성전자가 최병민 회장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깨끗한나라에 자금을 투입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약 780억원 규모이다. 희성전자가 깨끗한나라의 최대주주가 된 이후 최병민 회장 등은 이사회에서 사임하고 범 LG가의 경영인들이 깨끗한나라 이사회에 투입되었다. 이후 깨끗한나라는 적자에서 벗어나게 된다. 2010년 깨끗한나라는 매출 5,162억원에 약 3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게 된다. 그리고 2011년에는 매출 5,878억원에 약 11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하였다. 그리고 비로소 2012년에 깨끗한나라는 매출 6,334억원에 139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2013년 깨끗한나라는 대규모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였으며 여기에 더해 163억원 순이익을 기록하며 자본잠식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깨끗한나라를 극적으로 회생시킨 희성전자는 2014년 7월 깨끗한나라의 지분을 다시 최병민 일가에 매각한다. 하지만 그 대상은 최병민 회장이 아닌 최병민 회장의 세 자녀가 된다. 희성전자는 최병민 회장의 두 딸인 최현수, 최윤수씨와 아들인 최정규씨에게 지분 대부분을 매각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최정규씨에게 가장 많은 주식을 매각하였다. 그러면서 깨끗한나라의 최대주주는 희성전자에서 최정규씨로 변하게 된다. 최현수씨와 최윤수씨는 각각 약 285만주를 인수했으며 총 매수금액은 각각 약 167억원 규모였으며 최정규씨는 약 595만주를 인수하였고 금액으로는 약 347억원 규모였다. 최병민 회장의 세 자녀가 희성전자로부터 깨끗한나라의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된 총 금액은 약 680억원 수준이다.

그런데 최현수씨는 79년생, 최윤수씨는 82년생, 그리고 가장 많은 지분을 인수한 최정규씨는 91년생으로 2014년 7월 당시 최현수씨는 만 35살, 최윤수씨는 만 32살, 마지막으로 최정규씨 나이는 만 23살에 불과했다. 아무리 재벌가의 자제들이라도 20~30대 젊은 나이에 680억원이라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당시 깨끗한나라는 지분공시를 통해 최현수, 최윤수, 최정규씨의 주식 취득자금 조성 원천에 대해서는 증여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언론이 의문을 제기한,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며,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이후 최병민 회장은 다시 대표이사로 깨끗한나라의 경영권을 손에 쥐게 되었고 최병민 회장의 큰 딸인 최현수씨 역시 등기이사로 재직하며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그렇게 깨끗한나라는 다시 최병민 회장 일가의 품으로 돌아왔다.

다시 추락하는 실적

그런데 깨끗한나라의 경영권이 희성전자에 다시 최병민 회장 일가로 넘어가는 2014년부터 다시 깨끗한나라의 실적이 악화되기 시작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3년 깨끗한나라는 약 163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하였는데 2014년 깨끗한나라의 순이익은 약 24억원으로 급감하였으며 2015년에는 다시 적

자로 돌아서 약 2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게 된다.

(단위 : 천원)

구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매출	677,213,575	656,459,355	647,438,803	633,378,794
영업이익	3,315,872	6,808,857	20,639,735	16,672,783
당기순이익	-2,017,441	2,382,515	16,279,818	13,936,508

매출 규모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단기간의 급격한 수익성 악화가 단순히 경영진이 변경되어서일까?

2015년 실적에 대해 깨끗한나라는 경기침체 지속으로 인한 판매단가 하락으로 인해 수익률이 감소하였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같은 시기 다른 동종업계 실적을 보면 깨끗한나라의 설명을 선뜻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단위 : 천원)

구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유한킴벌리	매출	1,519,059,990	1,400,698,993	1,366,026,422	1,412,805,745
	영업이익	176,408,236	167,317,099	163,444,997	165,717,733
	당기순이익	140,737,893	144,055,149	135,574,220	137,236,737
쌍용씨앤비	매출	176,158,682	161,093,229	154,241,091	152,155,172
	영업이익	8,052,724	8,396,860	13,266,890	14,576,679
	당기순이익	5,106,853	5,748,119	7,045,163	10,252,424
모나리자	매출	124,972,520	124,816,021	129,863,285	132,796,075
	영업이익	6,240,496	8,419,213	8,618,319	11,403,603
	당기순이익	4,862,458	5,686,985	5,937,017	9,384,655

화장지류 등의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유한킴벌리나 쌍용씨앤비, 모나리자 등의 최근 실적을 보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깨끗한나라와 같이 실적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경기침체에 따라 판매단가 하락이 유독 깨끗한나라에만 치명적으로 작용한 것일까?

그런데 희성전자에서 최병민 회장으로 다시 깨끗한나라의 경영권이 변경된 2014년부터 낯선 특수관계법인들이 등장하게 된다.

낯선 특수관계법인들

2014년 깨끗한나라의 감사보고서에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항목에 새로이 특수관계자로 추가된 법인들과의 거래가 기재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주)나라손, (주)나렉스, 그리고 용인시스템이다.

2014년 이들과 깨끗한나라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분	매출	지급수수료
(주)나라손	4,704,288	8,159,126
(주)나렉스	-	1,204,230
용인시스템	-	1,449,366

깨끗한나라는 이들 3개 업체에 100억원 이상의 지급수수료를 지급했다. 하지만 깨끗한나라가 이들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2015년 이들과의 거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단위 : 천원)

구분	매출	매입	지급수수료
(주)나라손	9,610,628	24,779,842	-
(주)나렉스	1,288	-	23,466,731
용인시스템	16,790	-	14,385,582

깨끗한나라는 2015년 한 해 동안 나렉스와 용인시스템에게 약 380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했으며, 나라손으로부터는 약 248억원의 매입거래를 했다. 깨끗한나라가 이들 회사로부터 매입한 금액과 이들 회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더하면 620억원이 넘는 수준이다. 적지 않은 거래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거래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이들 3개 회사에 대해서는 알려진 부분이 거의 없다.

2015년 말 깨끗한나라의 주주구성에서 나라손과 나렉스는 각각 0.1%, 그리고 0.0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정작 지분공시에는 해당 법인에 대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만약 나라손과 나렉스가 최대주주인 최정규의 특수관계자라면 당연히 지분공시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누락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 3개 법인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묘한 공통점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이들 법인들의 이사회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나라손	나렉스	용인시스템
대표이사	원동윤	원동윤	원동윤
이사	최현수	최윤수	최윤수
이사	임무빈	신민수	신민수
감사	김재봉	김재봉	김재봉

이들 법인들의 대표이사는 동일하게 원동윤이고 감사는 김재봉이다. 그리고 최병민 회장의 두 딸인 최현수씨와 최윤수씨가 각각 이사로 재직중이다. 놀랍도록 닮아있다. 그런데 이들과 똑같은 이름을 깨끗한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원동윤은 2009년 깨끗한나라에서 재경부 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자금 및 회계 실무를 맡았던 인물이며, 김재봉은 회계업무부서의 과장으로 재직하며 회계업무처리와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물론 동명이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같은 이름의 인물이 같은 법인에서 함께 재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이다.

이들 3개 법인의 공통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들 법인들은 소재지는 모두 동일하다. 나라손과 나렉스, 그리고 용인시스템은 모두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97(충무로1가)'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있다.

깨끗한나라는 실적이 급락하기 시작한 2014년부터 이들 3개 법인과의 거래 규모는 늘려왔다. 그리고 이들 3개 법인은 마치 하나의 법인처럼 닮아있으며, 각각의 법인에는 최병민 회장의 자녀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3개 법인의 정확한 소유구조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로 분류되어 있고 이사회 구성 내역 등을 고려한다면 대략적인 소유구조를 짐작할 수 있다.

나라손의 자본금은 2억원이고 나렉스는 3억원, 그리고 용인시스템의 자본금은 1억원에 불과하다. 이들은 소형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깨끗한나라와 수백억원 규모의 거래 관계를 소화하고 있다. 구체적인 거래 관계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깨끗한나라의 최근 지분 구조를 본다면 최병민 회장에서 그의 세 자녀인 최현수, 최윤수, 그리고 최정규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 세 자녀는 깨끗한나라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증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서 자금의 출처, 관련 세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베일에 쌓여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해당 시점 이후로 깨끗한나라의 실적은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으며, 낯선 특수관계법인들과의 거래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상장회사는 흔히 말하는 오너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오롯이 그의 것은 아니다. 다수의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이며, 회사의 경영진들은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의사 결정을 하고 회사를 경영해야 한다. 그런데 깨끗한나라는 경영권이 희성전자에서 최병민 회장으로 이전되면서 실적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그만큼 회사 주주들의 재산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회사의 경영진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주주들은 깨끗한나라가 정말 깨끗하고 건강한 회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